



조선어연구회 창시 장지영선생의 2代 장남 世憲 · 차남 世燾박사

형제가 화학자 ... 서울대학교수 지내

우리나라 화학계의 대부인 장세헌박사와 장세희박사는 서울대 화학과를 나와 서울대학교수로 같은 길을 걸어온 형제 화학자이다. 조선어연구회를 창시한 烈雲 張志暎선생의 장남과 차남인 이들 형제 화학자들의 자녀들도 이공계박사로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어 과학기술계에선 잘 알려진 '과학명가'이다.

우리나라 화학계의 대부인 張世憲(73세)박사와 張世燾(69세)박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서는 잘 알려진 형제 화학자이다. 이들이 기초과학인 화학을 전공하게 된 배경에는 누구보다도 아버지인 烈雲 張志暎선생과 조부(張殷相)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특히 열운 장지영선생(1887~1976)은 수많은 옥고를 치르면서도 농촌계몽운동을 벌이고 학생들에게 민족혼을 불어넣어 준 우리 민족의 스승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아버지인 열운이 우리의 글인 한글로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몸

받쳐왔다면 세헌씨와 세희씨는 서울대 화학과에서 후학양성에 힘써왔다는 점에서 이들 부자는 비록 전공은 다르지만 평생 한길을 걸어온 것이다. 열운은 구한말 한성외국어학교에서 한어과를 졸업하고 주시경선생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국어를 공부한 민족학자지만 신학문에도 일찍이 관심을 보여 스스로 수학공부를 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조부 張殷相은 한의학자

문맹퇴치와 농촌계몽운동에 가담한 열운은 조선어교사, 교감 등 몇몇 뜻있는 분들과 힘을 모아 조선어학회(조선어연구회)를 창시했고 평생을 학생을 가르치는데 몸받쳐온 분이다. 이후 이대와 연대 교수로 계셨고 5.16이 발생하여 다시 잡혀들어 갔으나 교수직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풀려났고, 세종기념사업회를 만드는데 참여, 세종실록을

▼ 장남인 세헌(左)과 차남 세희박사의 어린시절.





▲ 모친 지명희여사 (첫째줄 좌측에서 세번째)의 구순때 가족 친지들과 함께한 세현씨(둘째줄 우측에서 세번째)와 세희씨(둘째줄 우측에서 첫번째)

▶ 열운 장지영선생 생존시 가족사진



국역하는데 감수를 하다가 마지막 생을 다하셨다.

열운이 수차례 옥고를 치르는 가운데, 배화여고 3회 출신인 지명희(池明喜)여사는 남편의 옥바라지를 시작으로 고생이 가중되었지만 열운과의 사이에 4남2녀를 두고 이들을 신학문 중에서도 기초과학을 공부시켰다. 열운의 아버지는 장은상(張殷相)으로 그때 당시 한의학을 공부하셨는데 조부는 늘 손자들에게 기초과학을 할 것을 강조하였고 열운은 어학과 역사학의 대가지만 사진에 큰 관심을 보였고 집에서 직접 사진을 현상할 정도로 화학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장남인 세현씨에게 화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장남 世憲박사 표면화학연구

장남 세현씨는 서울양정중학교를 나와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화학과에 들

어갔다. 중학교 시절 화학을 가르쳤던 최재완 선생의 독특한 수업방식과 우리 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선 이공계통 공부를 해야 한다는 훈사와 화학의 묘미에 푹 빠져 국내 화학발전을 위해 평생

을 바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서울대 졸업 후 미국 유타대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조교로 들어간 1946년부터 현재 명예교수가 될 때까지 오로지 서울대에서 물리화학중에서도 표면화학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대한민국 과학상과 학술원상을 수상한바 있고 대한화학회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해방전 고대의대 전신인 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정현식씨(남동생은 정명식 제철학원 이사장)사이엔 4남매를 두었다. 세현씨의 장녀인 백경(서울대 가정대 박사)과 사위 윤승렬(서울대 공대 화학공학과 졸업, 한양대 재료공학과 교수·작고) 그리고 장남 직현(서울대 자연대 수학과 졸업, 미국 미네소타대 컴퓨터사이언스전공, 현 서강대 전산과 교수로 재직), 차남 태현(서울대 자연

대 화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화학박사, 현 포항공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 차녀 숙경(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 사위 김원곤(서울의대 졸업, 현 서울의대 흉부외과 교수) 등 이들 4남매 부부 등 5명이 과학계에 몸담고 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화학을 전공한 차남 태현은 집안 분위기 자체가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늘 기초과학이 중요하다고 역설을 해오던 터라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전공한 화학을 택했다고 한다. 태현 또한 고교때 화학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전하며 물리화학쪽에서도 고분자를 대상으로 하는 물리화학과 분석화학을 연구했다.

차남 世憲박사 부인도 화학 전공

열운의 차남 세희씨는 형님 세현씨가 화학을 전공했으니 “차남인 너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국문학이나 역사학을 전공하라”던 부친의 권유를 물리치고 국립공업전문학교 기계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해방이 되어 국립서울대가 통합되면서 편입시험을 볼 때 화학과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같은 분야에 형제가 함께 종사하면 남들 보기에 어떨지 모르니까 화학을 하지 말라는 형님의 반대로 다시 물리학과를 지원하여 1학년 때는 물리학과 화학을 병행해 강의를 들었으나 화학에 더 많은 흥미와 애착이 가서 다시 화학과로 전과를 해 세희씨의 화학인생이 새롭게 펼쳐졌다.

형님과는 달리 유기화학이 전공인 세희씨는 유기화학중에서도 천연화학을 많이 연구했고, 그 중에서도 무당개구리 색소연구는 학계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

세희씨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는 서울대 농과대 농예학과 조교로 갔

다가 6.25사변이 나면서 국방부 과학기술연구소 제2조병창(연구관)으로 근무했다. 1952년 2학기에는 다시 농대로 복귀하였지만 53년 봄부터는 문리대 화학과에서 40여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정년퇴직하고 명예교수가 될 때까지 서울대와 한평생을 함께 했다. 세희씨는 서울대에서 이학부장과 자연대학장, 대학원장을 거쳤고 화학회에서는 간사장직을 맡았다. 서울대 사범대학 화학교육학과를 나온 김옥씨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세희씨의 장녀 화경(성심여대 가정학과 졸업. 현재 미국에서 패션디자이너로 활동)과 사위 박승민(미국 웨스트버지니아공대 건축학과졸업. 현재 건축사로 활동) 그리고 장남 택현(서울대 자연대 화학과 졸업. 미국 텍사스대 화학과 석사. 미국 웨스트버지니아공대 건축설계졸업. 현 설계사무소 근무)과 부인 윤은화(서울대 자연대 미생물학과 졸업)도 모두 과학가족. 차녀 진경(덕성여대 서양학과 졸업. 미국 뉴저지 럿거스대 미술학 석사)이 있다. 세희씨댁에서는 장남 택현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화학을 전공했으나 건축에 뜻을 두어 현재는 미국에서 건축설계사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열운의 3남인 세원씨는 국내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세대 상대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전구를 만드는 풍우사업을 만들어 현재는 회장으로 있다. 세원씨의 장남인 재현과 차남인 방현(고대 전기공학과 졸업)도 사업을 하여 가족 모두 산업전선에서 일하고 있다.

열운의 4남인 세경씨는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여 현재는 한양대학 도서관장으로 있다.

세경씨의 장녀 효경은 서울대 미대를

졸업했으며 장남 상현은 서울대 물리학과 박사.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서 박사과정 후 연수를 받고 있고 차남 경현은 서울대 국문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4남인 세경씨는 본인도 국문학을 전공하였고 차남인 경현마저도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이야말로 아버지인 열운의 대를 잇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열운의 장녀 영록씨와 남편 이석주씨 사이에 장남 이우형이 이대의대 교수를 지냈고, 차녀 영호씨의 남편 정주영씨가 서울공대 기계과를 졸업했고 둘사이에 상진과 상원이 있고 상원은 현재 독일 베를린대에서 독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아들 태현·택현도 화학과 전공

열운의 집안은 원래 6남매였지만 불행히도 열운을 제외한 5남매가 모두 일찍 작고하는 바람에 이들의 자녀들이 모두 열운의 집에서 자라났다. 열운의 부인인 지명희여사는 이들을 모두 친자 식들처럼 돌보고 함께 생활을 한 것이다. 이들 6촌 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훌륭한 인물이 무척 많이 나왔지만 이들중에서도 제일 만행격인 세형씨는 서울대 상대 전신인 경성고등상업학교를 나와 은행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 경성방직 상무이사까지 지냈다.

세형씨는 모두 9남매를 두었는데 이중 장남 보현은 물리학을 전공하여 중앙대 자연대 학장을 지냈고, 차남인 우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여 서울의대 교수로 있다가 현재는 춘천 한림대 부총장으로 있고, 4녀인 윤경은 서울대 생물과를 나와 현재 교수로 있다.

이처럼 6촌까지 한다면 그 가족이 수백명에 이르는 열운의 집안은 열운 자

신이 역사학이나 국문학에서 이름을 떨친 것에 비해 자손들은 소위 신학문중에서도 기초과학 분야인 화학분야에서 그 이름을 떨친 당대 명가라 하겠다.

이중에서도 장남 세현씨와 차남 세희씨가 서울대 화학과에서 명예교수까지 지냈고 그의 자식중에서도 태현과 택현이 아버지들의 대를 이어 서울대 화학과를 나오는 대를 이었다. 현재 포항공대 화학과에서 교수로 있는 태현은 일반적으로 수업이 조용조용하고 박학다식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아버지로부터는 열역학을 배웠고, 원래 달변가이며 재미있는 삼촌 세희씨로부터는 원어로 된 화학을 배웠다고 한다. 사촌인 택현도 같은 학부를 전공해 오히려 공부를 하는데는 재미도 있었고, 더군다나 화학계에서 거의 원로이신 아버님과 삼촌으로부터 수업을 들었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기도 했지만 늘 긴장하면서 수업을 들었노라고 회상한다.

또한 태현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인 열운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구경이나 무슨 명절 때마다 스승을 찾아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이고 재산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본인도 다른 어떤 욕심보다도 학생들을 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더욱 연구에 열중하는 학자의 모습으로 남고싶다고 전한다.

특히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조선어학회자료사진에 남아있는 열운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자녀를 볼 때는 더욱더 연구를 열심히 하여 나로 인하여 조상들의 이름이 더욱 빛나길 바라는 마음이 샘솟는다고 말한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